

# 해방 이후 호남지역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

윤선자\*\*

## 목차

### 머리말

- I. 복설과 신설의 지역별 추이
  - II. 복설과 신설의 시간적 추이
  - III. 제향 인물
- 맺음말

## 머리말

고종대의 훼손령으로 전국에 47개만 남았던 서원·사우가 일제강점기에는 상당수를 헤아릴 만큼 증가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그 서원·사우들은 고종대에 훼손된 것이 복설된 것, 새롭게 설립된 것이다. 그동안 서원·사우 문제는 조선시대사를 이해하는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고종대의 철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루어진 일제의 한국강점으로 인한 일제의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사업임. KRF-2006-332-A00022.

\*\*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식민통치 기간, 그리고 해방 이후 서원이 어떠한 행로를 걸었으며,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또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기울이지 않았다.

필자는 1945년 해방 이후 일제강점기까지를 대상으로 호남지역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에 대하여 추적하였다. 그리하여 고종 대의 1945년 해방 이전까지 전북과 광주전남에는 27개소와 59개소의 서원·사우가 각각 복설되었고, 42개소와 69개소가 각각 신설되었다는데 복설·신설 모두 일제강점 이후가 이전에 비하여 많았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서원·사우 설립이 일제의 통치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일제의 인식 때문이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복설 서원·사우의 제향 인물이 주로 조선시대 인물이었고, 임진왜란 관련 인물 및 이순신을 제향한 서원·사우는 일제와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신설 서원·사우 중에는 한말 의병을 제향한 곳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이어 해방 이전 서원·사우를 복설·신설한 이들은 법적적인 신분제가 무너졌지만 실제생활에서는 여전히 존재한 양반유생들이었음도 규명하였다.<sup>1)</sup>

이 논문은 그 후속 작업으로 해방 이후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추진되었고, 어떤 인물이 왜 제향되었는지를 추적,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방 이후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이 해방 이전과는 어떠한 차이는 있는지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는 근현대 서원·사우의 건립을 사회사적인 시각에서 추적하는 작업이고, 조선시대사 이해의 수준에서 머물렀던 서원의 위치와 역할을 한국 근현대사와도 연결함으로써 역사의 단절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배경은 1945년 해방 이후 2004년까지이고,

1) 윤선자, 「일제하 호남지역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 『한중인문학연구』 22, 한중인문학회, 2007.

공간 배경은 호남지역이다. 선행 논문과 마찬가지로, 『전북원우록』·『전북향교문화재단』·『유림대전』과<sup>2)</sup> 호남의 각 시·군에서 행해진 문화유적지표조사<sup>3)</sup>와 시·군사를 참조하고, 상당한 숫자의 서원·사우는 직접 현지조사 검토하였다.

2) 李泰淵, 『全北院宇錄』, 1973 ; 全羅北道 鄉校財團, 『全北鄉校祠宇大觀』, 1994 ; 『유림대전(전남편)』, 1981.

3) 이해준, 「강진군의 유교유적」, 『강진군의 문화유적』,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강진군 공편, 1989; 이해준, 「고흥군의 유교유적」, 『고흥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고흥군 공편, 1991; 김동수, 「곡성지방의 유교문화 유적」, 『곡성군 문화유적 학술조사』, 전남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곡성군, 1996; 박광석, 「유교유적」, 『광양군의 문화유적』, 순천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광양군, 1993; 향토문화개발협의회 편, 『광주의 문화유적』, 1990; 박광석, 「광양군의 유교문화유적」, 『광양군의 문화유적』, 순천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광양군, 1993; 이해준, 「구례군의 유교유적」, 『구례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구례군, 1994; 김동수, 「담양지방의 유교문화 유적」, 『담양군 문화유적 학술조사』, 전남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담양군, 1995; 이해준, 「무안지방의 유교문화유적」, 『무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무안군, 1986; 윤희면, 「보성군의 유교문화유적」, 『보성군 문화유적 학술조사』, 전남대학교박물관 편, 1992; 변동명, 「순천지역 서원과 사우」, 『순천향교사』, 순천향교, 2000; 승주문화원 편, 『승주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1984; 배종무, 「신안지방의 역사유적」,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신안군, 1987; 반윤홍, 「여천지방의 유교유적」, 『여천군의 문화유적』, 조선대학교국사연구소·전라남도·여천군 편, 1988; 김동수, 「영광군의 유교문화유적」, 『영광군 문화유적 학술조사』, 전남대학교박물관·영광군, 1993; 이해준, 「영암군의 유교문화 유적」, 『영암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영암군, 1986; 이해준·이명현, 「완도군의 불교·유교유적」, 『완도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완도군, 1995; 이해준, 「장흥지방의 유교유적」, 『장흥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장흥군, 1989; 배종무, 「진도군의 역사유적」, 『진도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진도군, 1987; 이해준, 「함평군의 유교유적」, 『함평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함평군, 1993; 이해준, 「해남지방의 유교문화유적」, 『해남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해남군, 1986; 반윤홍, 「화순군의 유교문화 유적」, 『화순군의 문화유적』, 조선대학교박물관 편, 1999.

## I. 복설과 신설의 지역별 추이

해방 이후 2004년까지 전북지역에는 79개의 서원·사우가 복설되었고, 52개가 신설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1945-2004년 전북의 시·군별 서원·사우의 복설·신설

시·군		신설·복설연도(서원·사우명)	계
군산시	복설		0
	신설	1970(문창서원)	1
김제시	복설	1962(백석사), 1965(팔효사), 1967(구암사), 1970(남산사/용암서원), 1971(두곡사/학당사), 1975(낙양사), 1988(청곡사)	9
	신설	1956(송망서원), 1965(벽성서원), 1971(벽제서원[모덕사]), 1972(병암사), 1975(낙양사)	5
남원시	복설	1956(용호서원), 1959(소덕사), 1961(술산사/호암서원), 1964(창주서원/충열사/풍계서원), 1992(십노사), 1993(매계서원[덕계사]), 해방후(환봉서원)	10
	신설	1973(녹천사), 1989(의충사)	2
익산시	복설	1959(충열사), 1961(오강원), 1962(두천사), 1966(화암원), 1968(화산서원), 1981(삼세오충열사), 1982(은천사)	7
	신설	1948(단동사), 1967(동산서원), 1974(매곡사)	3
전주시	복설	1968(청하서원)	1
	신설	1979(충경사), 1993(모양서원)	2
정읍시	복설	1954(송산사), 1956(옥산서원), 1963(도계서원/충열사), 1964(정충사), 1974(유애사), 1975(시산사), 1979(모충사), 1984(서현사), 1991(고암서원)	10
	신설	1945(도봉사/필양사), 1953(태홍사), 1959(노양서원), 1965(창동서원), 1969(동죽서원),	10

해방 이후 호남지역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

		1971(구양서원[태산사]), 1977(두암서원[경현사]), 1994(구민사)	
고창군	복설	1950(인산사), 1958(구동사/화동서원), 1960(금암사/충현원), 1961(노산사), 1972(옥계사/정산사), 1976(조산사/죽산사)	10
	신설	1946(월암서원), 1949(덕산사/만화서원), 1955(화강서원[용암사]), 1962(왕산사), 1977(니산서원), 1978(신산사), 1988(모충사), 1990(충절사)	9
무주군	복설	1969(도산서원), 1981(죽계서원)	2
	신설	1948(충의사), 1978(신안사)	2
부안군	복설	1975(사산사)	1
	신설	1982(송모사)	1
순창군	복설		0
	신설	1948(화남사), 1957(옥산사), 1971(무양사), 1974(오산사/경현사)	5
완주군	복설	1958(삼현사/호산서원), 1961(백현서원), 1967(반곡서원), 1970(구호서원), 1994(화산서원)	6
	신설	1966(봉양서원)	1
임실군	복설	1952(관곡서원), 1958(신안서원), 1959(영천서원/주암서원), 1965(덕암서원), 1966(현주서원), 1975(삼계서원)	7
	신설	1957(소충사), 1989(효충서원)	2
장수군	복설	1946(용암사/월강사), 1957(사동사), 1958(압계서원/창계서원), 1983(도암사)	6
	신설	1954(의암사), 1961(화산사), 1984(송덕사)	3
진안군	복설	1947(영계사/충효사), 1954(청덕사), 1959(송모사), 1961(화산사), 1967(구산사), 1971(충절사), 1972(영산사), 1977(오현사), 1980(용계사)	10
	신설	1945(옥천사), 1948(충열사), 1956(단운사), 1963(내산사), 1974(영곡사), 1992(화산서원)	6
계	복설		79
	신설		52

해방 이후 전북에서 서원·사우가 가장 많이 복설된 곳은 고창·남원·정읍·진안으로 각 10곳이고, 이어 김제가 9곳, 익산·임실이 각 7곳이다. 서원·사우가 가장 많이 신설된 곳은 정읍으로 10곳이고, 이어 고창, 진안, 김제·익산 순이다. 전북에서 가장 먼저 복설된 서원·사우는 1946년 장수의 용암사와 월강사이다. 장수 용암사는 1818년 창건, 1871년 훼손된 사우로 안성·양이하·양성린·김영갑·한인기 등 조선조의 학자·관인·효자들을 향사한 곳이고,<sup>4)</sup> 월강사는 1828년 창건, 1868년 훼손된 사우로 백장·송보산·김남택·최경회·등 고려와 조선의 문신·의병장들을 향사한 곳이다.<sup>5)</sup> 즉 전북에서 해방 이후 가장 먼저 복설된 두 사우는 고려와 조선조의 학자와 문인들을 향사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전북에서 해방 이후 가장 먼저 신설된 서원·사우는 정읍의 도봉사와 필양사, 진안 옥천사로 모두 1945년에 설립되었다. 정읍 도봉사는 조선 개국공신 김회련,<sup>6)</sup> 필양사는 1910년 일본천황의 은사금을 거절하고 그 때문에 군산감옥에서 순절한 김영상(金永相),<sup>7)</sup> 진안 옥천사는 성여완(成汝完)·성석린(成石璘)·성계종(成繼宗) 등 창녕성씨로 여말선초의 충신들을 향사한다.<sup>8)</sup> 즉 전북에서 해방 이후 가장 먼저 신설된 사우들은 여말선초는 물론 한말의 충신들과 향사한다는

4) 전라북도향교재단, 『전북향교원우대관』, 170~172쪽 ; 장수문화원, 『장수의 서원과 사우』, 2001, 113~114쪽.

5) 전라북도향교재단, 『전북향교원우대관』, 168~170쪽 ; 장수문화원, 『장수의 서원과 사우』, 141쪽.

6) 전라북도향교재단, 『전북향교원우대관』, 305~306쪽 ; 『정읍시사』 하, 2003, 2027쪽 ; 정읍문화원, 『泰仁의 儒教傳統文化』, 2003, 269~270쪽 ; 정읍문화원, 『井邑 院·祠錄』, 126~129쪽.

7) 『정읍시사』 하, 2726쪽 ; 정읍문화원, 『泰仁의 儒教傳統文化』, 271~272쪽 ; 정읍문화원, 『井邑 院·祠錄』, 130~132쪽.

8) 전라북도향교재단, 『전북향교원우대관』, 149~150쪽.

특징이 있다.

전북에서 고종대의 훼손 이후 1944년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부터 2004년까지 복설된 서원의 숫자와 복설비율, 신설된 숫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전북지역 서원·사우의 복설 숫자와 비율 및 신설 숫자

지역	훼손 이전설립	1872-1944년 복설(%)	1945-2005년 복설(%)	1872-1944년 신설	1945-2005년 신설
고창	20개소	3개소(15%)	10개소(50%)	9개소	9개소
군산	4개소	1개소(25%)	0개소	4개소	1개소
김제	22개소	4개소(18%)	9개소(40.9%)	4개소	5개소
남원	44개소	3개소(6.8%)	10개소(22.7%)	3개소	2개소
무주	9개소	2개소(22.2%)	2개소(22.2%)	3개소	2개소
부안	8개소	0개소(0%)	1개소(12.5%)	0개소	1개소
순창	8개소	1개소(12.5%)	0개소	1개소	5개소
완주	11개소	4개(40%)	5개소(45.4%)	1개소	1개소
익산	11개소	1개소(9.1%)	7개소(63.6%)	5개소	3개소
임실	21개소	1개소(4.8%)	7개소(33.3%)	1개소	2개소
장수	6개소	0개소(0%)	6개소(100%)	0개소	3개소
전주	11개소	4개소(36.4%)	1개소(9%)	2개소	2개소
정읍	15개소	3개소(14.3%)	10개소(66.6%)	3개소	10개소
진안	11개소	0개소(0%)	10개소(90.9%)	6개소	6개소
계	200개소	27개소(13.5%)	79개소(39.5%)	42개소	52개소

시간적으로 1872-1944년은 72년의 기간이고, 1945-2005년은 50년의 기간이기에 단순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해방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기간이 보다 길지만, 그리고 전근대적 층과 효의 관념이 보다 강했다고 할 수 있는데도 1945

년 이후의 복설 숫자와 비율이 1944년의 그것들보다 약 3배 많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복설에 그만큼 장애가 많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것은 서원·사우에 향사하는 인물 중 상당수가 고려와 조선조의 ‘충’의 표상이었고 충을 실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해방 이후 전북에서 서원·사우의 복설이 숫자적으로 가장 많았던 지역은 고창·남원·정읍·진안으로 각 10곳이 복설되었다. 장수의 경우 훼손 이후 1944년 이전까지 1곳도 복설되지 않았다가 해방 이후 모두가 복설되었고, 진안도 해방 이후 11곳 중 10곳이 복설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복설 숫자와 비율이 해방 이전보다 높는데 전주와 군산·순창에서는 해방 이전보다 이후의 복설 숫자와 비율이 낮다.

신설 상황을 보면 군산·남원·무주·익산에서 해방 이전보다 이후 숫자가 적다. 군산의 경우 복설과 신설 모두 해방 이후가 적는데 그 이유는 군산이 개항 이후 근대화 내지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수탈의 중심지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원과 익산에서 신설 서원·사우가 해방 이전보다 적은 이유는 복설이 매우 많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주는 1개 사우가 더 신설되었을 뿐이다.

해방 이후 광주전남에 복설·신설된 서원·사우는 다음과 같다.

<표 3> 1945-2004년 광주전남의 시·군별 서원·사우의 복설·신설

시·군		신설·복설연도(서원·사우명)	계
광양 시	복설	1977(신재서원[봉양사])	1
	신설	1957(옥평사)	1
광주 시	복설	1946(대동사/절효사), 1957(황산사), 1963(대명사/덕림사), 1977(장열사), 1978(경열사), 1986(의열사)	8

해방 이후 호남지역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

	신설	1946(남동사/동호사), 1951(대산사), 1957(등립사), 1958(무광사/학산사), 1974(충장사), 1977(두암사), 1980(매동사), 1985(충민사), 1986(임계서원)	11
나주시	복설	1947(철천사), 1953(설재서원), 1963(정열사), 1971(계간사), 1974(월정서원), 1977(경현서원)	6
	신설	1946(용산사), 1958(동산사), 1967(월봉사), 1969(호남사), 1971(충효사), 1974(송산사), 1976(수산사/호암사), 1977(지산사), 1980(방촌사), 1987(충경서원)	11
목포시	복설		
	신설		
순천시	복설	1947(충무사), 1948(율봉서원), 1953(옥계서원), 1958(곡수서원[청사사]), 1961(이천서원), 1970(정충사), 1971(용강서원), 1974(충민사), 1984(청수서원[지봉사])	9
	신설	1948(충무사), 1954(송천서원), 1958(월계서원), 1960(문천사), 1971(육충사), 1972(충열사), 1976(미강서원)	7
여주시	복설	1947(충민사), 1962(오충사), 1977(봉양사)	3
	신설	1957(옥평사), 1985(서산사)	2
구례군	복설	1955(죽연사), 1969(남악사), 1985(방산서원[모덕사])	3
	신설	1962(매천사)	1
강진군	복설	1946(금강사), 1959(남강서원/행정사), 1965(주봉서원), 1969(수암서원), 1971(위봉사), 1975(화암사[오충사]), 1976(대계사), 1977(덕호사)	9
	신설	1945(남전사), 1966(강덕사), 1972(둔덕사), 1984(명곡서원)	4
고흥군	복설	1956(재동서원), 1957(쌍충사), 1988(봉암사)	3
	신설	1956(화강서원[용암사]), 1966(백옥사), 1970(선덕사), 1974(안동사/영곡사), 1975(임오사), 1980(창효사/충무사/충의사), 2000(세덕사)	10

곡성 군	복설	1955(무곡사), 1959(덕계사), 1960(영귀서원), 1965(귀암사)	4
	신설	1952(화산사), 1956(옥산사), 1958(충열사), 1959(영양사/오봉사)	5
담양 군	복설	1990(삼청영당)	1
	신설	1970(포의사)	1
무안 군	복설	1946(병산사/월산사), 1947(우산사)	3
	신설	1946(평산사), 1969(다산사/애송사), 1975(승현사/양림사), 1979(태봉사), 1980(대봉사), 1981(충효사), 1982(금성사)	9
보성 군	복설	1961(오충사)	1
	신설	1979(동춘서원)	1
신안 군	복설		0
	신설	1955(봉산사)	1
영광 군	복설	1946(보춘서원[서강사]), 1958(송림사), 1971(송춘사), 1974(내산서원[용계사]), 1978(지산사)	5
	신설	1947(검산사), 1954(우산사/육왕사), 1967(계송서원), 1970(지장사), 1973(덕림사), 1992(여흥사)	7
영암 군	복설	1946(장동사), 1961(운호사/죽정서원), 1971(충효사), 1977(녹동서원[존양사]), 1979(구고사)	6
	신설	1947(월지사), 1956(송정사), 1968(관봉사), 광복후(국암사/호암사)	5
완도 군	복설	1954(신호사), 1960(충무사), 1963(영모사), 1972(덕암사)	4
	신설	1945(송모사), 1955(덕산사/봉암사)	3
장성 군	복설	1946(죽림사), 1957(양계사), 1960(가산사), 1970(두동사), 1976(봉암서원[종양사]/용전사), 1977(수산사), 1982(오산창의사), 1989(어량사), 1990(표의사), 1998(옥산사)	11
	신설	1967(수산사), 1970(서림사), 1974(도산사), 1984(동강사/동산서원), 1999(송모사)	6

해방 이후 호남지역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

장흥 군	복설	1948(세덕사), 1954(봉강사), 1955(충열사), 1959(금계사), 1967(반계사), 1971(포충사), 1972(기양사/다산사), 1975(예양서원), 1976(사현사), 1979(호계사), 1985(백동사), 1988(연곡서원)	13
	신설	1948(비정사), 1951(만수사), 1955(해동사), 1958(진산사), 1959(황산사), 1960(삼산사), 1962(당곡사)	7
진도 군	복설		0
	신설	1945(충무사/향명사), 1958(추모사), 1966(울향사)	4
함평 군	복설	1950(백야사), 1956(원모사)	2
	신설	1946(송계사), 1947(덕천사), 1957(수백사), 1970(해강사), 1983(삼일사)	5
해남 군	복설	1958(삼충사), 1965(예양사), 1966(충무사), 1973(영산사), 1975(충절사), 1976(표충사), 1985(용연사), 해방후(해촌사)	8
	신설	1947(운곡사), 1948(용지사)	2
화순 군	복설	1955(충효사), 1961(충헌사), 1968(표충사), 1971(죽수서원), 1976(도원서원), 1978(송월사)	6
	신설	1945(춘산사), 1946(죽산사), 1947(백암사), 1955(세덕사), 1962(삼산사/용산사), 1971(유천사), 1973(절산사), 1979(백록서원), 1985(동원사), 2004(지곡서원[부일사])	11
계	복설		106
	신설		114

해방 이후 2004년까지 광주전남에는 106개의 서원·사우가 복설되었고, 114개가 신설되었다. 신설이 복설보다 약 8% 더 많다. 광주전남에서 서원·사우가 가장 많이 복설된 곳은 장흥으로 13곳이고, 강진·순천 각 9곳, 광양·해남 각 8곳 순이다. 서원·사우가 가장 많이 신설된 곳은 광주·나주·화순이 각 11곳이고, 이어 고흥이 10곳, 무안이 9곳, 순천·영광·장흥이 각 7곳 순이다.

광주전남에서 해방 이후 가장 먼저 복설된 서원·사우는 강진 금강사, 광주 대동사와 절효사, 영광 보춘서원, 영암 장동사, 장성 죽림사로 모두 1946년에 복설되었다. 강진 금강사는 이순신과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도운 김억추를 향사하고자 1781년 창건, 1868년 훼손, 1901 설단되었다.<sup>9)</sup> 광주 대동사는 고려개국공신 유차달을 향사하고자 1727년 창건, 1868년 훼손, 복설하면서 차(車)·유(柳) 양씨의 조상들을 추배하였다.<sup>10)</sup> 광주 절효사는 1839년 창건, 고종대에 훼손되었다가 복설, 광산노씨 노준공을 제향하였고,<sup>11)</sup> 영광 보춘서원은 1782년 창건, 1868년 훼손, 1927년 설단, 이극기·이안례·이율을 향사하였다.<sup>12)</sup> 영암 장동사는 1677년 창건, 1868년 훼손, 임진왜란 공신 전봉성 등 천안전씨들을 향사하였고,<sup>13)</sup> 장성 죽림사는 1590년 창건, 1868년 훼손, 조선조 관인 이 수를 향사하였다.<sup>14)</sup> 이들 사우의 특징은 강진 금강사와 영암 장동사는 임진왜란 관련 인물을 향사하고 그 외 사우들은 특정 집안의 선조 중 학문·관인 등을 명분으로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에서 해방 이후 가장 먼저 신설된 서원·사우는 강진 남전사, 완도 송모사, 진도의 충무사와 향명사, 화순의 춘산사로 모두 1945년에 설립되었다. 강진 남전사는 조종근,<sup>15)</sup> 완도 송모사는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청산도에서 서당을 세우고 후세교육을 한 김 류 외 34명,<sup>16)</sup> 진도 충무사는 이순신을 주벽으로,<sup>17)</sup> 진도 향명사는 박득립,

9) 이해준, 「강진군의 유교유적」, 251쪽.

10) 향토문화개발협의회 편, 『광주의 문화유적』, 1990, 227쪽.

11) 위의 책, 206쪽.

12) 『영광군지』, 1994, 806쪽 ; 김동수, 「영광군의 유교문화유적」, 312~313쪽.

13) 이해준, 「영암군의 유교문화 유적」, 246~247쪽.

14) 『장성군사』, 2001, 1001쪽.

15) 이해준, 「강진군의 유교유적」, 250쪽.

화순 춘산사는 최익현·문달환·양재해·이병섭·손영열·박규병을 향사하였다.<sup>18)</sup> 이들 사우는 임진왜란 명장 이순신, 한말의병장 최익현, 지방교육에 공헌한 이들을 향사하는 등 제향 인물이 다양하다.

광주전남에서 고종대의 훼손 이후 1944년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부터 2005년까지 복설된 서원의 숫자와 복설비율, 신설된 숫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광주전남지역 서원·사우의 복설 숫자와 비율 및 신설 숫자

지역	훼손 이전 설립	1872-1944년 복설(%)	1945-2005년 복설(%)	1872-1944년 신설	1945-2005년 신설
강진	17개소	3개소(17.6%)	9개소(52.9%)	3개소	4개소
고흥	8개소	4개소(50%)	3개소(37.5%)	4개소	10개소
곡성	14개소	1개소(7.1%)	4개소(28.5%)	5개소	5개소
광양	2개소	0개소	1개소(50%)	0개소	1개소
광주	25개소	3개소(12.0%)	8개소(32%)	8개소	11개소
구례	5개소	0개소	3개소(60%)	1개소	1개소
나주	38개소	10개소(25.6%)	6개소(15.7%)	9개소	11개소
담양	22개소	1개소(4.5%)	1개소(4.5%)	2개소	3개소
무안	13개소	4개소(30.8%)	3개소(23%)	2개소	9개소
보성	15개소	2개소(13.3%)	1개소(6.6%)	1개소	1개소
순천	14개소	3개소(21.4%)	9개소(64.2%)	0개소	7개소
여수	2개소	2개소(100%)	3개소*	1개소	2개소
영광	18개소	4개소(22.2%)	5개소(27.7%)	2개소	7개소
영암	17개소	5개소(29.4%)	6개소(35.2%)	3개소	5개소
완도	3개소	0개소	4개소*	1개소	3개소
장성	28개소	4개소(14.3%)	11개소(39.2%)	1개소	6개소
장흥	23개소	6개소(26.1%)	13개소(56.5%)	5개소	7개소

16) 이혜준·이명헌, 「완도군의 불교·유교유적」, 117~120쪽.

17) 『진도군지』, 1968, 706쪽.

18) 『화순군지』, 637쪽 ; 반윤홍, 「화순군의 유교문화 유적」, 404쪽.

진도	2개소	1개소(50%)	0개소	5개소	4개소
합평	36개소	3개소(8.3%)	2개소(5.5%)	2개소	5개소
해남	16개소	2개소(12.5%)	8개소(50%)	2개소	2개소
화순	18개소	1개소(5.5%)	6개소(33.3%)	5개소	11개소
합계	337개소	59개소(15.7%)	106개소(31.4%)	62개소	114개소

1945년 이후의 복설 숫자와 비율이 1944년의 그것들보다 약 2배 많다. 지역별로 보면 해방 이후 광주전남에서 서원·사우의 복설이 숫자적으로 가장 많았던 지역은 장흥으로 13곳이고, 이어 장성 11곳, 강진·순천 각 9곳 순이다. 구례는 월척 이후 1944년 이전까지 1곳도 복설되지 않았다가 해방 이후 5곳 중 3곳이 복설되었다. 그런데 고흥·나주·무안·보성·진도·합평 등 광주전남의 23개 시·군 중 6개 지역에서는 해방 이후의 복설 숫자와 비율이 해방 이전보다 낮다. 그 이유는 이들 지역의 복설 숫자가 해방 이전에 상당히 높았고, 또한 해방 이후 신설 숫자가 높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진도에서만 해방 이후 신설이 해방 이전보다 1곳 적다. 무안과 순천은 각 7곳, 고흥과 화순은 각 6곳이 해방 이전에 비해 더 신설되었다. 그리고 이중 순천과 화순에서는 복설 숫자도 해방 이전보다 상당히 많은데, 순천은 고종대에 월척되었던 서원·사우의 대부분이 복설되었다.

광주전남과 전북을 비교해보면, 광주전남이 전북보다 복설은 약 34%, 신설은 119% 더 많다. 이는 해방 이후 광주전남과 전북의 인구 변동 및 지역발전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전북은 물론 광주전남에서도 복설은 1946년, 신설은 1945년에 이루어졌다. 복설보다 신설이 먼저 이루어진 것은 복설에 따른 준비와 절차가 신설보다 복잡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 II. 복설과 신설의 시기별 추이

해방 이후 광주전남과 전북의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1945-2004년 연도별 광주전남 및 전북의 서원·사우 복설·신설

연도	광주전남		전북		연도	광주전남		전북		연도	광주전남		전북	
	복설	신설	복설	신설		복설	신설	복설	신설		복설	신설	복설	신설
1945		5		3	1965	3	0	2	2	1985	3	3	0	0
1946	7	6	2	1	1966	1	3	2	1	1986	2	0	0	0
1947	5	6	2	0	1967	1	3	3	2	1987	0	1	0	0
1948	1	2	0	4	1968	1	1	3	0	1988	2	0	1	1
1949	0	0	0	2	1969	2	3	1	0	1989	1	0	0	2
1950	1	0	1	0	1970	2	5	3	1	1990	1	1	0	1
1951	0	2	0	0	1971	7	3	3	2	1991	0	0	1	0
1952	0	1	1	0	1972	3	2	4	1	1992	0	1	1	1
1953	2	0	0	1	1973	1	2	0	1	1993	0	0	1	2
1954	2	3	2	1	1974	3	5	1	4	1994	0	0	1	1
1955	5	5	0	1	1975	3	3	4	1	1995	0	0	0	0
1956	2	2	2	2	1976	5	3	2	1	1996	0	0	0	0
1957	3	3	1	2	1977	7	2	1	3	1997	0	0	0	0
1958	4	7	7	0	1978	3	0	0	2	1998	1	0	0	0
1959	4	3	5	1	1979	2	3	1	0	1999	0	1	0	0
1960	3	2	2	1	1980	0	6	1	0	2000	0	1	0	0
1961	5	0	6	1	1981	0	1	1	0	2001	0	0	0	0
1962	1	4	2	1	1982	0	1	1	1	2002	0	0	0	0
1963	4	0	3	0	1983	0	1	1	0	2003	0	0	0	0
1964	0	0	4	0	1984	1	3	1	1	2004	0	1	0	0

1945년 광주전남과 전북에는 복설이 전혀 없었다. 같은 시기 신설은 광주전남에서 5개, 전북에서는 3개였다. 1946년에는 복설이 7개와 2개, 신설이 6개와 1개, 1947년에는 복설이 5개와 2개, 신설이 7개와 0개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복설은 광주전남에 12개, 전북에 4개가 이루어져 광주전남이 전북보다 3배 많다. 같은 기간 신설은 광주전남에 17개, 전북에 4개로 광주전남이 전북보다 4.3배 많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복설은 광주전남에 27개, 전북에 21개로 광주전남이 전북보다 1.3배 많다. 같은 기간 신설은 광주전남에 31개, 전북에 15개로 광주전남이 전북보다 2.1배 많다. 1940-50년대는 정부수립과 전쟁을 겪으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문화정책의 무위방임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sup>19)</sup> 195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정책은 일제가 남긴 박물관의 유지와 황실재산관리에 국한되었다. 195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민족문화의 창조, 발전을 주장하였지만 문화재 관리에 대한 통합 조직 및 정책은 갖추지 못하였다.<sup>20)</sup> 그러나 이 기간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에서도 많은 서원·사우가 복설되었고 신설되었다. 대부분이 후손과 지방유림들에 의해 복설과 신설이 추진되었다. 1952년 유림의 거목 김창숙이 ‘반독재호헌구국선언’을 하여 이승만정권에 정면 대립, 1956년 12월 이른바 김창숙 계열의 유림과 자유당정권의 조종을 받은 유림이 분열되었지만, 유교적인 가르침을 존중하고 회복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19) 문화공보부, 『문화공보 30년』, 1979 : 오양렬, 「한국의 문화행정체계 50년 : 구조 및 기능의 변천과정과 그 과제」, 『문화정책논총』 7, 1995.

20) 전재호,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 박정희체제의 전통문화정책」, 『사회과학연구』 7,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1998, 89쪽.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부터 1968년까지 복설은 광주전남에 16개, 전북에 25개로 전북이 광주전남보다 1.5배 많다. 같은 기간 신설은 광주전남에 11개, 전북에 6개로 광주전남이 전북보다 1.8배 많다. 1961년 문화재관리국이 설립되고, 1962년 문화재법이 제정되고, 1968년 7월 문화공보부가 발족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서구화를 지향하는 근대화운동이 사회운동으로 고조되던 1960년대까지는 전통문화에 대한 비판과 무관심이 팽배하였다.<sup>21)</sup> 13년(1948-1960), 8년(1961-1968)이라는 기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앞 시기는 정부수립과 한국전쟁이 있었으므로 뒷 시기보다 상황이 열악했을 터인데 복설과 신설이 활발하였다. 유교적인 가르침과 가치가 존중되고 있었던 때문이라 여겨진다.

문화재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9년부터 문예진흥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된 1978년까지 복설은 광주전남에 36개, 전북에 19개로 광주전남이 전북보다 1.9배 많다. 같은 기간 신설은 광주전남에 28개, 전북에 16개로 광주전남이 전북보다 1.7배 많다. 1961-1968년 기간보다 복설이나 신설 모두 급증하였다. 그 이유는 이 시기 정부 정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박정희정권은 1968년 7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통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공보부를 발족하였다. 문공부는 1970년대부터 전통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의 조사 발굴 활동, 전국민속종합조사사업, 전국명승조사사업, 전국유형문화재현황조사사업, 전국 지정·비지정문화재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문화재보호법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문화재개발5개년계획(1969-1974), 제1차 문

21) 금장태, 『현대 한국유교와 전통』,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83쪽.

예중흥5개년계획(1974-1978) 등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대규모 사업을 벌였다. 더불어 문화재복원정책도 1960년대가 “원형의 보존유지에 주안점을 두어 단위문화재에 대한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보수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였다면, 1970년대는 “종합적, 근본적인 보수복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화 조성으로 발전”하였다.<sup>22)</sup> 이러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이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례가 적지만 몇몇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에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완주 반곡서원과 완주 백현서원은 1967년과 1961년에 각각 복설되었는데, 정부보조금이 있었다.<sup>23)</sup> 반곡서원은 국유·국함·국침(鞠沉)·국명(鞠溟) 등 절의와 효행이 뛰어난 담양구씨들을 제향한 사우이고, 백현서원은 조선중기 문신 구영을 제향한 사우이다. 정읍 서현사는 임진왜란 때 순절한 박문효(朴文孝)를 제향하고자 1819년 창건되었다가 고종대에 훼손되었고 1984년 복설되었는데 역시 국비 보조로 하였다.<sup>24)</sup> 영광 무령서원(구 기천사)도 정부 보조로 1975년 개수하였다.<sup>25)</sup> 그리고 정읍 무성서원을 시작으로 7개의 서원·사우가 문화재로 지정되었다.<sup>26)</sup>

1979-1989년에는 복설이 광주전남에 11개, 전북에 7개로 광주전남이 전북보다 1.5배 많다. 같은 기간 신설은 광주전남에 19개, 전북에 5개로 광주전남이 전북보다 3.8배 많다. 제5공화국 정부는 헌법

22) 문화공보부, 『문화공보 30년』, 284쪽.

23) 전라북도향교재단, 『전북향교원우대관』, 124~126쪽.

24) 『정읍시사』 하, 2028쪽; 정읍시, 『태산선비 문화권 개발계획연구』, 2002, 87쪽.

25) 『영광군지』, 1994, 804쪽.

26) 1968.12.19(정읍 무성서원-사적 166), 1974.5.22(광주 표충사-광주기념물 7호), 1974.9.24(정읍 유애사-전북기념물 18호/곡성 충열사-전남유형문화재 51호), 1974.12.26(장흥 연곡서원-전남기념물 18호), 1975.4.23(장성 필암서원-사적 242호), 1976.9.30(장흥 표충사-전남기념물 19호), 1977.10.20(영광 내산서원-전남기념물 28호/나주 미천서원-전남기념물 29호)

제8조에 국가의 문화발전의 의무를 명시하고 4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문화창달을 제시함으로써 의견상으로는 문화진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sup>27)</sup> 그러나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었다. 1969-1978년과 비교하면 복설은 물론 신설도 매우 감소하였다. 이 기간에도 호남지역의 많은 서원·사우가 문화재로 지정되었다.<sup>28)</sup>

1990-1999년에는 복설이 광주전남에 2개, 전북에 4개로 전북이 광주전남보다 2배 많다. 같은 기간 신설은 광주전남에 3개, 전북에

27) 채원호·허만용, 「지방정부의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조직의 역사적 변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1호, 2004.5, 171쪽.

28) 1979.8.3(광주 병천사-전남유형문화재 11호/강진 수암서원-전남기념물 39호), 1981.4.11(장수 논개사당-전북기념물 46호), 1981.10.20(장성 봉암서원-전남기념물 54호/곡성 용산재 및 덕양사-전남기념물 56호/ 나주 무열사-전남기념물 57호/고흥 무열사-전남기념물 58호), 1982.10.15(장성 고산서원-전남기념물 63호), 1984.2.29(광주무양서원-전남문화재자료 3호/순천 옥천서원-전남문화재자료 4호/순천 옥계서원-전남문화재자료 5호/순천 충렬사-전남문화재자료 6호/구례 남악사-전남문화재자료 36호/구례 매천사-전남문화재자료 37호/여수 충무사-전남문화재자료 48호/고흥 덕양서원-전남문화재자료 53호/고흥 대성사-전남문화재자료 54호/장흥 강성서원-전남문화재자료 70호/장흥 만수사-전남문화재자료 71호/나주 설재서원-전남문화재자료 93호/나주 봉강사-전남문화재자료 94호/곡성 덕산사-전남문화재자료 120호/순천 해망서원-전남문화재자료 122호), 1984.4.1(전주 반곡서원-전북문화재자료 11호/전주 황강서원-전북문화재자료 12호/임실 영천서원-전북문화재자료 20호/임실 주암서원-전북문화재자료 21호/임실 수암서원-전북문화재자료 22호/장수 화산사-전북문화재자료 34호/장수 암계서원-전북문화재자료 35호/장수 창계서원-전북문화재자료 36호/남원 창주서원-전북문화재자료 51호/남원 유천서원-전북문화재자료 52호/남원 용장서원-전북문화재자료 53호/남원 풍계서원-전북문화재자료 54호/남원 호암서원-전북문화재자료 55호/남원 구천사-전북문화재자료 58호/남원 십노사-전북문화재자료 59호/정읍 남고서원-전북문화재자료 76호/정읍 동죽서원-전북문화재자료 77호/정읍 창동성원-전북문화재자료 78호/정읍 도계서원-전북문화재자료 79호), 1985.2.25(순천 용강서원-전남문화재자료 121호), 1986.2.17(강진 금강사-전남기념물 91호), 1986.9.8(장수 월강사-전북문화재자료 31호), 1986.9.29(화순 죽수서원-전남문화재자료 130호), 1987.6.1(영암 장동사-전남기념물 109호), 1987.9.18(고흥 서동사-전남문화재자료 155호)

5개로 전북이 광주전남보다 많다. 2000-2004년에는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에도 복설 사우는 전혀 없고, 광주전남에만 신설 사우가 2개 있다. 고종대의 훼손 이후 2004년까지 복설된 서원·사우는 전북은 53%, 광주전남은 47%이지만 1990년대부터 복설은 물론 신설이 급감한<sup>29)</sup>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유교인구의 감소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한말에 상실하였으니 해방 이후 새삼 이 부분을 서원·사우의 감소 이유로 설명할 수는 없다. 통계청에서 종교인구를 처음 계산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종교별 신자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1985·1995·2005년 종교별 인구

연도	전국 인구	종교인구						
		합계	개신교	천주교	유교	불교	원불교	기타
1985	40,419,652	17,203,296	6,489,282	1,865,397	<b>483,366</b>	8,059,624	92,302	213,325
		42.6%	16.1%	4.6%	<b>1.2%</b>	19.9%	0.2%	0.5%
1995	44,553,710	22,597,824	8,760,336	2,950,730	<b>210,927</b>	10,321,012	86,823	267,996
		50.7%	19.7%	6.6%	<b>0.5%</b>	23.2%	0.2%	0.6%
2005	47,041,434	24,970,766	8,616,438	5,146,147	<b>104,575</b>	10,726,463	129,907	247,236
		53.1%	18.3%	10.9%	<b>0.2%</b>	22.8%	0.3%	0.5%

29) 이 기간에도 문화재 지정은 계속되었다. 1990.2.24(고흥 쌍충사-전남기념물 128호), 1993.3.20(광주 화답사-광주기념물 18호)/1993.6.1(여수 충민사-사적 381호), 1998.11.27(정읍 옥산서원-전북문화재자료 141호 / 정읍 주천서원-전북문화재자료 142호), 2000.6.23(정읍 남천사-전북문화재자료 154호/남원 풍주천서원-전북문화재자료 155호/김제 서강사-전북문화재자료 1.23(김제 백산서원-전북문화재자료 158호/무주 백산서원-전북문화재자료 160호/무주 분양서원-전북문화재자료 161호/고창 덕천사-전북문화재자료 162호/고창 송주천서원-전북문화재자료 163호), 2001.12.13(나주 경열사-전남기념물 196호), 2005.7.13(순천 정충사-전남기념물 232호), 2005.11.11(정읍 영주정사 및 영양사-등록문화재 212호)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1995년 11월 1일)에 의하면 전국의 종교인구비율은 42.6%였고 유교인구비율은 1.2%였다. 10년 후인 1995년에는 전국의 종교인구비율은 50.7%로 증가하였는데 유교인구비율은 0.5%로 10년 전보다 1/2 이하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전국의 종교인구비율은 53.1%로 증가하였는데 유교인구비율은 0.2%로 10년 전보다 1/2 이하로 감소하였다. 유교인구의 감소는 그만큼 유교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한 그리스도교신자수의 증가는 신주를 모시는 서원·사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1949년 17.3%에서 1960년 28%, 1980년 57.3%, 1995년 78.5%로 상승한 도시화의 비율,<sup>30)</sup> 1970년 10.7%에서 1981년 13.7%, 1991년 17.8%, 2001년 38.3%, 2005년 52.6%, 2008년 61.9%로 증가한 화장의 비율<sup>31)</sup>도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서원·사우 복설과 신설의 급감 이유일 것이다.

### III. 제향 인물

해방 이후 복설·신설된 서원·사우에서 어떠한 인물을 향사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서 서원·사우가 복설·신설되었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유교적 가치가 해방 이후 어떠한 의미를 가졌고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해방 이후에도 1872-1944년과 마찬가지로 복설·신설된 서원·사

30) 박해인, 「가정의례의 변화와 21세기의 지향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제6권 1호, 2001, 32쪽.

31) 보건복지부 통계.

우 중 가장 많이 제향된 인물은 특정 성씨, 즉 문중들의 조상들이다. 그들은 관리·충신, 뛰어난 학자였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후손들에 의해 제향되었다. 후손들은 조상들 가운데 훌륭한 인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조성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한 선양사업으로 서원·사우를 복설·신설하였다. 가문의식에 따라 조상을 빛내야 한다는 의무감과 가문을 명예롭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유교의 핵심교리인 인의 실천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효이다. 유교의 참된 이상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가족, 이웃, 남에게까지 확장시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편안한 대동세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실천덕목은 의의 준수이다.<sup>33)</sup> 최봉영에 의하면<sup>34)</sup>, 의가 아무리 엄격하고 공평하다 할지라도 가족, 특히 부모와 관계될 때는 부모가 우선이었고, 이로부터 형성된 것이 가족주의이다. 따라서 유교에서의 관계는 가족관계에서부터 시작하였고, 가족공동체는 언제나 삶의 중심이 되었다. 가족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이 부모에 대해 행하는 효이고, 가족의 모든 일은 가족 사이의 화목을 출발점으로 삼았다.<sup>35)</sup> 한국인의 의식 속에 유교적 도덕규범이 가장 철저하게 침투하고 있는 것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도이다. 효의 도덕의식은 한국인의 생활형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sup>36)</sup>

---

32) 금장태, 『현대 한국유교와 전통』, 126쪽.

33) 박홍식, 「유교의 정체성을 다시 묻는다 ; 유교의 본질과 역사, 그리고 미래 전망 -한국 유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50, 2007.

34) 최봉영, 『조선시대의 유교문화』, 사계절, 1997.

35) 이호영,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유교문화의 역할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유교문화의 계승방향-」, 『국제지역연구』 12-1, 국제지역학회, 2008, 172쪽.

36)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4쪽.

그런데 해방 이후 복설·신설된 서원·사우 중 효자를 제향한 곳은 상당히 적다. 광주전남의 복설 사우로는 강진 덕호사(1977)·구례 죽연사(1955)·영암 충효사(1971), 신설 사우로는 장성 용전사(1976)·함평 덕천사(1947)·해남 운곡사(1947), 전북의 복설 서원·사우로는 김제 낙양사(1975)·김제 팔효사(1965)·장수 사동사(1957)·장수 압계서원(1958)·진안 구산사(1967)·진안 용계사(1980) 등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효를 내세우는 서원·사우가 없는 것은 효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때문이라 여겨진다.

지역 연고가 있는 서원·사우로는 광주전남의 복설사우로 광양 봉양사(1977:광양출신 기묘명현, 기묘명현으로 광양현감), 순천 청수서원(1984:순천부사), 장흥 기양사(1972:장흥출신 학문과 예술 수원백씨 9현, 광산김씨 2녀, 부안임씨 2현 등 13위), 해남 해촌사(해방후:해남의 3현 최부, 임억령, 유희춘) 등이다. 전북의 신설 사우로는 정읍 노양서원(1959)이 지역 연고가 있는데 송시열이 정읍에서 사약을 받았었다.

해방 이후 복설·신설된 서원·사우 중 공자, 주자 등 중국인 제향이 거의 없는 이유는, 유림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심산 김창숙을 중심으로 유림조직의 재건운동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창숙은 성균관의 문묘에 조선시대부터 제향되던 많은 중국의 선현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별로 의미가 없는 인물의 위패를 과감히 퇴출시키고, 공자의 아래에 四聖, 공문십철, 송조육현의 20위와 우리나라 선현 18위만 남겨두는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는 중국 중심의 사대의식을 털어내고 한국유교의 독자적 문묘체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변혁의 의미였다.<sup>37)</sup> 이러한 개혁이 개별 서원·사우의 복설·신설에도 영향을 준

37) 금장태, 『현대 한국유교와 전통』, 135~136쪽.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고려시대 인물을 제향하는 것도 많지 않다. 고려시대 인물을 배향한 곳은 광주전남의 복설 서원·사우로 광주 경열사(1978), 완도 덕암사(1972), 장성 가산사(1960), 화순 송월사(1978)이고, 신설 서원·사우는 강진 강덕사(1966), 광양 옥평사(1957), 나주 수산사(1976), 나주 지산사(1977), 나주 충경서원(1987), 무안 송현사(1975), 장성 송모사(1999), 장흥 삼산사(1960), 장흥 황산사(1959), 화순 동원사(1985)이다. 전북의 복설 서원·사우는 고창 화동서원(1958), 김제 두곡사(1971), 익산 두천사(1962)이고, 신설 서원·사우는 고창 만화서원(1949)이다.

해방 이후 복설·신설된 서원·사우에 가장 많이 향사된 인물은 이순신이다. 이순신을 제향한 광주전남의 복설 서원·사우는 강진 금강사, 순천 충무사, 여수 충민사, 완도 충무사, 해남 충무사 등 5곳, 신설 서원·사우는 광주 무광사, 고흥 충무사, 진도 충무사 등 3곳이다. 전북의 복설 서원·사우는 익산 충열사, 정읍 유애사, 정읍 충열사 등 3곳, 신설 서원·사우는 익산 충열사이다.

강진 금강사는 1800년 창건, 1868년 훼손, 1901 설단, 1946년 복설되었는데 이순신과 이순신을 도운 김억추 장군을 제향하였다.<sup>38)</sup> 순천 충무사는 1690년 설립되어 이순신과 정운·송희립을 제향하였는데, 1944년 가을 일본인들에 의해 불타버렸다. 해방 후 순천유림 및 지방유지의 발기로 호남신문사와 협력으로 재건을 기획하여 ‘충무공 유적 복구기성회’를 조직하여 10여만원에 달하는 성금으로 충무사의 재건공사에 착수, 1948년 10월 19일에 낙성식이 거행되었다.<sup>39)</sup> 여수 충민사는 1601년 창건, 1868년 훼손, 1947년 복설, 1978년 정화사업을

38) 이해준, 「강진군의 유교유적」, 251쪽.

39) 『동아일보』 1948.10.22 ; 『국민보』 1948.11.24.

하였다. 완도 충무사는 1598년 설립, 1781년 탄보묘로 사액, 1868년 훼손되었다가 1960년 복설되었다. 1981년 ‘사단법인 이충무공유적 고금도 충무사보존위원회’가 설립되었다.<sup>40)</sup> 해남 충무사는 1712년 설립, 1966년 복설되었다. 1975년 성역화를 위한 조정사업을 시작하였고, 현판 ‘충무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한 것이다. 한편 충무사에 세워진 명랑대첩비는 이순신이 1597년 9월 16일 우수영 울돌목에서 거둔 명랑대첩을 기록한 것으로 1942년 조선총독부가 높이 2.67m, 폭 1.14m의 비석을 서울로 옮겨 경복궁 근정전 뒷뜰에 파묻었다. 해방이 되자 ‘충무공 유적 복구 기성회’를 조직하고 대첩비를 찾아내 미군정청에 협조를 구해 미군트럭에 실어 서울역으로 옮겨 목포까지 열차로, 목포에서 배를 이용하여 우수영 선창으로 이동하였다. 비(碑)를 세울 장소가 없어서 버렸기 때문에 제각(祭閣)을 짓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1950년 비각을 완공하였다. 명랑대첩비는 1965년 보물 503호로 지정되었다.<sup>41)</sup>

한편 진도 충무사는 1945년 해방과 함께 신설되었고,<sup>42)</sup> 광주 무광사는 1958년 신설되었다.<sup>43)</sup> 그리고 고흥 충무사는 1580년 7월 이순신 장군이 발포만호로 부임하여 1582년 1월 모함을 받아 파면되기까지 18개월간 재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사우이다. 1976년 ‘충무공 유적 고흥보전위원회’(49명)가 구성되어 발포 만호진성도제산의 남측 기슭, 성곽의 북벽 바깥에 인접한 경사지에 군민사업으로 1976~1980년에 걸쳐 건립하였다.

40) 이해준·이명현, 「완도군의 불교·유교유적」, 113~117쪽.

41) 황도훈, 『해남문화유적도록』, 해남문화원, 1995 ; 정운섭, 『해남』, 향지사, 1997.

42) 『진도군지』, 1968, 706쪽.

43) 향토문화개발협의회 편, 『광주의 문화유적』, 200쪽.

이러한 이순신 제향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을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권 차원의 이순신 신격화 작업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다. 1962년부터 이순신을 기리는 제례 또는 의식으로 충무공탄신기념제가 지방문화제를 겸해 대규모로 열리기 시작하였고, 박정희의 지시로 문교부는 1967년 4월 28일을 문교부령 제179호로 이충무공 탄생기념일로 제정하였다.<sup>44)</sup> 박정희는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1962)에서 이순신과 전봉준을 국난극복의 애국정신을 보여준 인물로 언급하였다.<sup>45)</sup> 특히 이순신과 세종대왕의 유적을 특별히 보수·정화하였고, 이들의 업적을 가장 열성적으로 선전하였다. 두 위인에 대한 정책은 박정희의 개인적 선호도에 크게 의존하였는데 두 위인은 박정희가 가장 존경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sup>46)</sup>

박정희정권은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반일적인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친일적 이미지 희석, 이순신의 구국영웅적인 이미지를 통해 군출신인 박정희대통령의 통치를 합리화, 이순신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논리로 야당세력을 비판하였다.<sup>47)</sup> 이순신은 박정희정권 때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적 영웅으로 추모되고, 위기의 상황에 놓인 민족과 국가를 구한 애국충정의 군인으로서 암시적으로 박정희의 역사적 모델로 상징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48)</sup>

군사영웅신화는 이 시기의 문화재보수와 복원사업에 분명하게 표현되었다.<sup>49)</sup> 1706년 창건된 현충사는 황폐해졌다가 1932년 범국민

---

44) 문화공보부, 『유신이념과 충무공정신』, 1973, 87쪽.

45) 박정희,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 동아출판사, 1962, 97~105쪽.

46) 정재경, 『한민족의 중흥사상』, 신라출판사, 1979 : 전재호,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 박정희체제의 전통문화정책」, 94쪽.

47) 전재호,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 박정희체제의 전통문화정책」, 96쪽.

48) 오명석, 「196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4, 1998, 128쪽.

적 모금을 통해 재건되었고,<sup>50)</sup> 1962년 충청남도에 의해 1,345명의 경내가 5,359평으로 확장되었고, 유물전시관을 비롯하여 사무실과 담장이 신축되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1966년 현충사 종합정화에 관한 지시를 통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을 종합적으로 정화하여 강조할 것”을 지시하였다.<sup>51)</sup> 이에 따라 현충사는 1966년부터 1975년까지 사당을 증건하고, 기념관을 신축하였으며, 생가를 보수하고 묘역과 주변환경을 정화하였으며,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현충사 경역은 1967년 10만 6천여평으로, 1973년 21만 6천여 평으로, 1974년에는 42만 5천여 평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현충사는 1967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 제155호로 지정되었다. 현충사는 당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 등을 통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새로운 순례지이며 성지와 같은 의미를 부여받았다.<sup>52)</sup>

이러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이순신은 물론 임진왜란 관련 인물과 병자호란·정유재란 관련 인물을 향사하는 서원·사우의 복설·신설에 힘을 이루었다. 이들은 ‘호국’ 인물들이기 때문이었다. 박정희정권은 유달리 ‘호국문화유적의 복원과 정화’를 강조했다. 단순히 이전의 유적을 보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기념비를 세우며 주변환경을 정화하는 등 새로운 유적을 조성하였다. 전국의 주요한 호국국방유적들은 1970년대에 거의 모두 보수·복원·정화되었다.<sup>53)</sup>

문공부는 ‘문화재개발 5개년 계획’을 1969년부터 시작하고 전국

49) 유흥준, 『나의문화유산 답사기』, 창작과 비평사, 1993, 164쪽.

50) 『동아일보』 1992.4.27.

51) 문화공보부, 『문화공보 30년』, 285쪽.

52) 문화공보부, 『호국선현의 유적』, 1979, 287~288쪽.

53) 전재호,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 박정희체제의 전통문화정책」, 90~91쪽.

의 ‘호국 유적’을 복원했다. 이순신과 임진왜란 관련 유적들, 윤봉길·유관순의 사당이 이때 생겨나고, 불국사·세종대왕·강릉 오죽헌·추사고택들도 ‘민족사상’의 선현 유적으로서 새로 개발되었다. 박정권은 또한 문예진흥원을 발족시켜 1974년부터 이른바 ‘문예진흥 5개년 계획’을 실시했다.<sup>54)</sup> 이 계획의 기조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참고하면서 고도로 발전한 문화를 가진 현대산업국가로서의 미래상을 정확히 표현할 그러한 문화의 발전을 장려”<sup>55)</sup>하는 것이었다. 또 박정권은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문화단체를 관변화, 중앙화했다. 개발독재 문화정책의 최고의 기조로 채택된 것은 ‘민족’이었다. 문화공보부는 1974-1978년 ‘문예진흥 5개년계획’에서 전체 예산의 70.2%를 ‘민족사관 정립’에 투자하고 그중 90%를 문화재 발굴에 썼다. 이는 ‘문화재에 깃든 국난 극복의 호국 자주정신과 문화창조의 슬기를 국가발전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자 하는 박정희의 생각에 연유한 것’이었다.<sup>56)</sup>

호남에서도 많은 서원·사우가 호국인물 제향을 명분으로 복설·신설되었다. 광주전남의 복설 서원·사우 중 제향 인물이 임진왜란 31개, 병자호란 1개, 정유재란 2개로 복설 사우의 34%가 임진왜란·병자호란·정유재란 관련 인물을 향사하고 있다. 신설 서원·사우 중에는 임진왜란 13개, 병자호란 1개, 정유재란 1개로 신설 사우의 17%가 임진왜란·병자호란·정유재란 관련 인물을 향사하고 있다.

전북의 복설 서원·사우 중에는 임진왜란 14개, 병자호란 4개, 정유재란 1개로 복설 서원·사우의 28%가 임진왜란·병자호란·정유재란

54) 문화공보부, 『문화공보 30년』, 227쪽.

55) 「한국의 문화정책」, 『문예진흥』 제3권 4호, 문예진흥원, 193쪽 ; 하효숙, 「1970년대 문화정책을 통해 본 근대성의 의미 : 문예진흥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논문, 2000, 12쪽.

56) 문화공보부, 『문화공보 30년』, 19쪽.

관련 인물을 향사하고 있다. 신설 서원·사우 중에는 임진왜란 6개, 병자호란 1개, 정유재란 1개로, 신설 사우의 17%가 임진왜란·병자호란·정유재란 관련 인물을 향사하고 있다. 특히 장수 의암사는 해방 이후 설립된 사우 중 여성을 향사하는 유일한 사우이다. ‘장수삼절’의 한 사람이자 임진왜란 때 제2차 진주성싸움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 순국한 의암 주논개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한 곳으로 1954년 창건되었고, 1973년 현재의 위치로 이견하여 이듬해 완공되었다.<sup>57)</sup>

그런데 민족과 국가의 위기로 보아서는 일본의 식민지배만큼 심각한 시대가 없었지만, 독립운동 유적은 임진왜란 등의 유적보다는 관심이 덜 하였다.<sup>58)</sup> 광주전남의 복설 서원·사우 중에는 없는데 전북 복설 서원·사우 중에는 한말의병 및 독립운동가를 향사한 곳들이 있다. 익산 충열사(1959)는 이순신과 함께 이준·안중근·백정기·이봉창·윤봉길 등 구한말 5열사를 추배하였다.<sup>59)</sup> 정읍 시산사(1975)는 최익현과 김기술 등 한말창의 인물을 제향하였다.<sup>60)</sup> 임실 소충사는 이석용을 포함하여 박만화·최덕일·여주목(이상 義將), 한사국·이광삼·김사범·허윤조(이상 의사), 윤정오·김치삼·김여집·서성일·정군삼·한상주·박인완·박달천·김춘화·박운서·최일권·양경삼·서상렬·오병선·성경삼(이상 義卒), 김학도·김동권·박철규·허천석(이상 義童), 봉수·덕홍(이상 義僧) 등 28위를 제향하였는데, 1957년 창건되던 해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액하였다.<sup>61)</sup>

57) 장수문화원, 『장수의 서원과 사우』, 209쪽.

58) 오명석, 「196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129쪽.

59) 전라북도향교재단, 『전북향교원우대관』, 457~459쪽 ; 익산문화원, 『益山の樓亭·書院·祠宇』, 2002, 331~332쪽.

60) 정읍문화원, 『泰仁의 儒教傳統文化』, 258쪽 ; 『정읍시사』 하, 272쪽.

61) 전라북도향교재단, 『전북향교원우대관』, 210~211쪽 ; 임실문화원, 『任實의 史

해방 이후 광주전남 신설 서원·사우 중에도 한말의병 및 독립운동가를 향사한 곳들이 있다. 광주 남동사(1946)는 국치 후 은사금을 거절한 심원표, 광주 대산사(1951)는 한말 의병장 최익현과 유인석,<sup>62)</sup> 구례 매천사(1962)는 황 현,<sup>63)</sup> 담양 포의사(1970)는 고흥순 의병장,<sup>64)</sup> 무안 다산사(1969)는 김 구,<sup>65)</sup> 무안 양림사(1975)는 기우만,<sup>66)</sup> 무안 평산사(1946)는 최익현·기우만·박임상,<sup>67)</sup> 장성 삼일사(1990)는 장성 모현리 3·1운동의 주역 13인,<sup>68)</sup> 장성 서림사(1970)는 기우만,<sup>69)</sup> 장흥 진산사(1958)는 김 구,<sup>70)</sup> 장흥 해동사(1955)는 안중근,<sup>71)</sup> 화순 삼산사(1962)는 기정진,<sup>72)</sup> 화순 춘산사(1945)는 최익현<sup>73)</sup>을 각각 제향하였다. 최익현이 3곳, 기우만이 3곳, 김 구가 2곳에서 각각 제향되었는데, 최익현과 기우만을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의병장이라는 점에서 향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건립 시기는 1945-1949년 3곳, 1950년대 3곳, 1960년대 3곳, 1970년대 3곳, 1990년대 1곳이다.

전북에서는 신설 서원·사우 중 고창 덕산사(1949)는 백인수·백관

---

蹟地」, 2001, 76쪽.

62) 광산문화원, 『魚登의 脈-광주서남문화권문화유적총람』, 1996, 225쪽.

63) 이해준, 「구례군의 유교유적」, 248~249쪽.

64) 『담양군 문화유적 학술조사』, 1995.

65) 이해준, 「무안지방의 유교문화유적」; 『무안군사』, 1994, 975쪽.

66) 이해준, 「무안지방의 유교문화유적」; 『무안군사』, 1994, 974쪽.

67) 『무안군사』, 972쪽.

68) 『장성군사』, 2001, 1002쪽.

69) 『장성군사』, 1002쪽.

70) 이해준, 「장흥지방의 유교유적」, 330쪽.

71) 이해준, 「장흥지방의 유교유적」, 330쪽.

72) 반윤홍, 「화순군의 유교문화 유적」, 405쪽.

73) 『화순군지』, 637쪽; 반윤홍, 「화순군의 유교문화 유적」, 404쪽.

수·백정기,<sup>74)</sup> 순천 무양사(1971)는 기정진·기우만,<sup>75)</sup> 익산 매곡사(1974)는 김근배·윤봉길·백정기,<sup>76)</sup> 임실 소충사(1957)는 이석용 의병장을 비롯하여 28의사,<sup>77)</sup> 정읍 필양사(1945)는 1910년 일본천황의 은사금을 거절하고 그 때문에 군산감옥에서 순절한 김영상,<sup>78)</sup> 진안 영곡사(1974)는 최익현·송병선,<sup>79)</sup> 진안 충열사(1948)는 송병선·최익현·민영환·조병세·홍만식·이준·안중근·윤봉길·이봉창·백정기를<sup>80)</sup> 각각 향사하였다. 백정기·윤봉길·최익현·송병선이 각 2곳에서 향사되고 있는데, 이 중 백정기와 최익현은 전북 출신이다. 서원·사우들의 신설 시기는 1945-1949년 3곳, 1950년대 1곳, 1970년대 3곳이다.

그런데 한말의병 및 독립운동가를 향사한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이 1980년대 이후 급감 내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1980년대 독립운동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1987년 독립기념관이 설립되었지만, 국가묘역인 현충원에 그들이 안장되거나 기억된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한 후손들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제 병암사(1972)는 송기면,<sup>81)</sup> 남원 녹천사(1973)는 양석

74) 전라북도향교재단, 『전북향교원우대관』, 353~354쪽.

75) 전라북도향교재단, 『전북향교원우대관』, 286~287쪽 ; 『淳昌郡 文化遺蹟地表面 調査報告書』, 1989, 67쪽.

76) 전라북도향교재단, 『전북향교원우대관』, 455~456쪽 ; 익산문화원, 『익산의 누정·서원·사우』, 249~250쪽.

77) 전라북도향교재단, 『전북향교원우대관』, 210~211쪽 ; 임실문화원, 『임실의 사적지』, 76쪽 ; 임실문화원, 『傳하고 싶은 내고장의 자랑, 忠·孝·烈』, 1997, 46~47쪽.

78) 정읍문화원, 『泰仁의 儒教傳統文化』, 2003, 271~272쪽 ; 정읍문화원, 『정읍원·사록』, 130~132쪽.

79) 전라북도향교재단, 『전북향교원우대관』, 139쪽.

80) 전라북도향교재단, 『전북향교원우대관』, 147~149쪽.

81) 전라북도향교재단, 『전북향교원우대관』, 415~416쪽.

권·김익두·오재열,<sup>82)</sup> 진안 내산사(1963)는 정종엽<sup>83)</sup> 등 구한말 학자들을 제향하였다. 또한 정읍 구민사(1994)는 전봉준·김개남·손화중 등 동학농민전쟁지도자들과 동학농민전쟁 참여자들을 제향하였다.<sup>84)</sup> 전북이 동학농민운동의 중심지라는 측면에서 건립된 것이다.

서원·사우에 제향한 인물들의 특징은 충과 효이다. 그리고 그들을 제향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후손들의 자부심이다. 그런데 유교의 중심적 가르침인 충효가 현대사회에서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재해석되지 못하였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앞서 ‘주인의식’이 요구되고, 부모에 대한 ‘효도’ 못지않게 ‘독립심과 책임의식’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 충효 규범은 그 가치가 퇴색한 것이다.<sup>85)</sup>

## 맺음말

해방 이후 2004년까지 전북지역에는 79개의 서원·사우가 복설되었고, 52개가 신설되었다. 가장 많이 복설된 곳은 고창·남원·정읍·진안으로 각 10곳이고, 신설된 곳은 정읍으로 10곳이었다. 가장 먼저 복설된 서원·사우는 1946년 장수의 용암사와 월강사인데 고려와 조선조의 학자와 문인들을 향사한다는 특징이 있다. 신설 사우들은 여말선초는 물론 한말의 충신들과 향사한다는 특징이 있다. 1945년 이후의 복설 숫자와 비율이 1944년의 그것들보다 약 3배 많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복설에 그만큼 장애가 많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

82) 전라북도향교재단, 『전북향교원우대관』, 261~262쪽.

83) 전라북도향교재단, 『전북향교원우대관』, 138쪽.

84) 『정읍시사』 하, 2724쪽.

85) 금장태, 『현대 한국유교와 전통』, 149~150쪽.

것은 서원·사우에 향사하는 인물 중 상당수가 고려와 조선조의 ‘충’의 표상이었고 충을 실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복설 숫자와 비율이 해방 이전보다 높다. 신설은 군산·남원·무주·익산에서 해방 이전보다 이후 숫자가 적다. 군산은 개항 이후 근대화 내지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수탈의 중심지였다는 데, 남원과 익산은 복설이 매우 많았다는 데 이유가 있다.

해방 이후 광주전남에는 106개의 서원·사우가 복설되었고, 114개가 신설되었다. 가장 많이 복설된 곳은 장흥으로 13곳이고, 신설된 곳은 광주·나주·화순으로 각 11곳이다. 가장 먼저 복설된 서원·사우들은 1946년에 복설되었는데, 특정 집안의 선조 중 학문·관인·충신 등을 명분으로 하였다. 신설 서원·사우들은 1945년에 설립되었는데 제향 인물은 다양하다. 1945년 이후의 복설 숫자와 비율이 1944년의 그것들보다 약 2배 많다. 광주전남의 23개 시·군 중 6개 지역에서는 해방 이후의 복설 숫자와 비율이 해방 이전보다 낮은데 그 이유는 이들 지역의 복설 숫자가 해방 이전에 상당히 높았고, 해방 이후 신설 숫자가 높은 때문이었다. 진도에서만 해방 이후 신설이 해방 이전보다 1곳 적다.

광주전남과 전북을 비교해보면, 광주전남이 전북보다 복설은 약 34%, 신설은 119% 더 많다. 이는 해방 이후 광주전남과 전북의 인구 변동 및 지역발전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전북은 물론 광주전남에서도 복설은 1946년, 신설은 1945년에 이루어졌다. 복설보다 신설이 먼저 이루어진 것은 복설에 따른 준비와 절차가 신설보다 복잡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해방 이후 광주전남과 전북의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1945-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복설은 12개

와 4개, 신설은 17개와 4개였다. 1948-1960년은 복설은 27개와 21개, 신설은 31개와 15개였다. 대부분 후손과 지방유림들에 의해 복설과 신설이 추진되었다. 1961-1968년 복설은 16개와 25개, 신설은 11개와 6개였다. 1969-1978년 복설은 36개와 19개, 신설은 28개와 16개로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박정희정권의 전통문화추진정책 시기 정부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1979-1989년 복설은 11개와 7개, 신설은 19개와 5개로 감소하였다. 1990년대부터 복설은 물론 신설이 급감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유교인구의 감소 때문이었다.

해방 이후에도 복설·신설된 서원·사우 중 가장 많이 제향된 인물은 특정 성씨, 즉 문중들의 조상들이다. 그들은 관리·충신, 뛰어난 학자였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후손들에 의해 제향되었다. 복설·신설된 서원·사우에 가장 많이 향사된 인물은 이순신이다. 이순신을 제향한 광주전남의 복설 서원·사우는 5곳, 신설 서원·사우는 3곳, 전북의 복설 서원·사우는 3곳, 신설 서원·사우는 1곳이다. 이순신 제향 서원·사우 건설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권 차원의 이순신 신격화 작업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은 임진왜란 관련 인물과 병자호란·정유재란 관련 인물을 향사하는 서원·사우의 복설·신설에 힘을 이루었다. 모두 ‘호국’ 인물들이기 때문이었다. 호남에서도 많은 서원·사우가 호국인물 제향을 명분으로 복설·신설되었다.

한편 광주전남의 신설 서원·사우와 전북의 복설·신설 서원·사우 중에는 한말의병 및 독립운동가를 향사한 곳들이 있다. 전북 복설 서원·사우 3곳, 광주전남 신설 서원·사우 13곳, 전북 신설 서원·사우 7곳이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급감 내지 중단되었는데 국가묘역인 현충원에 안장되거나, 후손들의 열악한 상황 때문이다.

**주제어** : 복설, 신설, 충, 효, 이순신, 임진왜란, 독립운동가, 호국인물, 광주전남, 전북

(논문투고: 2009. 11. 19 / 논문수정일: 2009. 12. 15 / 심사완료: 2009. 12. 15)

## 참고문헌

- 광주전남의 23개 시군 및 전북의 14개 시군의 시사·군지.  
광산문화원, 『魚登의 脈-광주서남문화권문화유적총람』, 1996.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금장태, 『현대 한국유교와 전통』,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문화공보부, 『유신이념과 충무공정신』, 1973.  
문화공보부, 『호국선현의 유적』, 1979.  
문화공보부, 『문화공보 30년』, 1979.  
승주문화원 편, 『승주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1984.  
李泰淵, 『全北院宇錄』, 1973.  
익산문화원, 『益山の 樓亭·書院·祠宇』, 2002.  
임실문화원, 『任實의 史蹟地』, 2001.  
장수문화원, 『장수의 서원과 사우』, 2001.  
全羅北道 鄉校財團, 『全北鄉校祠宇大觀』, 1994.  
향토문화개발협회의회 편, 『광주의 문화유적』, 1990.  
김동수, 「영광군의 유교문화유적」, 『영광군 문화유적 학술조사』, 전남대학교박물관·영광군, 1993.  
김동수, 「담양지방의 유교문화 유적」, 『담양군 문화유적 학술조사』, 전남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담양군, 1995.  
김동수, 「곡성지방의 유교문화 유적」, 『곡성군 문화유적 학술조사』, 전남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곡성군, 1996.  
박광석, 「유교유적」, 『광양군의 문화유적』, 순천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광양군, 1993.

- 박광석, 「광양군의 유교문화유적」, 『광양군의 문화유적』, 순천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 광양군, 1993.
- 반윤홍, 「여천지방의 유교유적」, 『여천군의 문화유적』, 조선대학교국사연구소·전라남도·여천군 편, 1988.
- 반윤홍, 「화순군의 유교문화 유적」, 『화순군의 문화유적』, 조선대학교박물관 편, 1999.
- 배종무, 「신안지방의 역사유적」,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신안군, 1987.
- 배종무, 「진도군의 역사유적」, 『진도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진도군, 1987.
- 변동명, 「순천지역 서원과 사우」, 『순천향교사』, 순천향교, 2000.
- 윤희면, 「보성군의 유교문화유적」, 『보성군 문화유적 학술조사』, 전남대학교박물관 편, 1992.
- 이해준, 「무안지방의 유교문화유적」, 『무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무안군, 1986.
- 이해준, 「영암군의 유교문화 유적」, 『영암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영암군, 1986.
- 이해준, 「해남지방의 유교문화유적」, 『해남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해남군, 1986.
- 이해준, 「강진군의 유교유적」, 『강진군의 문화유적』,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강진군 공편, 1989.
- 이해준, 「장흥지방의 유교유적」, 『장흥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장흥군, 1989.
- 이해준, 「고흥군의 유교유적」, 『고흥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 학교박물관·전라남도·고흥군 공편, 1991.
- 이해준, 「함평군의 유교유적」, 『함평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학교박물관·전라남도·함평군, 1993.
- 이해준, 「구례군의 유교유적」, 『구례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학교박물관·전라남도·구례군, 1994.
- 이해준·이명현, 「완도군의 불교·유교유적」, 『완도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완도군, 1995.
- 박혜인, 「가정의례의 변화와 21세기의 지향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제6권 1호, 2001.
- 오명석, 「196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4, 1998
- 오양렬, 「한국의 문화행정체계 50년 : 구조 및 기능의 변천과정과 그 과제」, 『문화정책논총』 7, 1995.
- 윤선자, 「일제하 호남지역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 『한중인문학연구』 22, 한중인문학회, 2007.
- 이호영,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유교문화의 역할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유교문화의 계승방향-」, 『국제지역연구』 12-1, 국제지역학회, 2008.
- 전재호,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 박정희체제의 전통문화정책」, 『사회과학연구』 7,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1998,
- 채원호·허만용, 「지방정부의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조직의 역사적 변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1호, 2004.5.
- 하효숙, 「1970년대 문화정책을 통해 본 근대성의 의미 : 문예진흥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논문, 2000.

## A Study of Restorative & New Establishments of Seowon-Sawoo(private academies) in Honam Province after Liberation

Yoon, Seon-ja

After liberation, 79 Seowon-Sawoo were established restoratively and 52 ones were established newly at Jeonbuk Province till 2004. At most areas, the number & rate of restorative establishments are higher before liberation. As for newly establishments, the number of ones is few after liberation than before at Gunsan·Namwon·Muju·Iksan. It's because Gunsan was center of modernization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 & center of plundering during Japanese Rule, and Namwon & Iksan had many restorative establishments.

After liberation, 106 Seowon-Sawoo were established restoratively with 114 new establishments at Gwangju-Jeonnam Province. Among 23 cities·districts of Gwangju-Jeonnam, the number & rate of restorative establishments after liberation are lower than before at only 6 areas, and it's because the number of restorative establishments was considerably higher before liberation, and the number of new establishments was higher after liberation at these areas. As for new establishments, only Jindo has one place less after liberation than before.

As the result of comparing Gwangju-Jeonnam with Jeonbuk, Gwangju-Jeonnam have higher restorative establishments of

about 34% and new establishments of 119% than Jeonbuk. This is regarded it has much to do with the population change & regional development of Gwangju-Jeonnam and Jeonbuk after liberation. Not only at Jeonbuk but at Gwangju-Jeonnam, restorative establishments were done in 1946 and new establishments in 1945. The reason that new establishments were done previously than the restorative is thought that preparation & procedures of the restorative were more complex than the new. If inspected the situation of the restorative & the newre done previous at Gwangju-Jeonnam and Jeonbuk after liberation in the chronological order, it has decreased rapidly since 1990s, and the reason of it is change of values & decrease of Confucian population.

After liberation, among Seowon-Sawoo established restoratively·newly, the persons enshrined most are the particular surnames, or ancestors of a family. Because they were government officials, loyalists & outstanding scholars, they were enshrined by their descendants. The person enshrined most at Seowon-Sawoo established restoratively·newly is Lee Soonshin. There are 5 Seowon-Sawoo established restoratively which enshrined Lee Soonshin at Gwangju-Jeonnam, 3 Seowon-Sawoo established newly, and 3 Seowon-Sawoo established restoratively at Jeonbuk with one Seowon-Sawoo established newly. The construction of Seowon-Sawoo which enshrines Lee Soonshin is related to deification of Lee Soonshin from political power since

1960s. And, the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caused a boom of restorative & new establishment of Seowon-Sawoo to enshrine persons related to Imjin war(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Manchu Invation·Jeongyu Invation. It's because they were all persons of defending fatherland. In addition, at Honam, many Seowon-Sawoo were established restoratively & newly for the reason of enshrining persons of defending fatherland.

In the mean time, among Seowon-Sawoo established newly at Gwangju-Jeonnam and Seowon-Sawoo established restoratively & newly at Jeonbuk, there are ones to enshrine loyal troops in late Yi Dynasty & independence activists. They are 3 Seowon-Sawoo established restoratively at Jeonbuk, 13 Seowon-Sawoo established newly at Gwangju-Jeonnam, and 7 Seowon-Sawoo established newly at Jeonbuk. However, it was reduced rapidly or stopped after 1980s because they were buried at the National Cemetery or their descendants were in poor surroundings.

**Key Words** : Restorative establishment, New establishment, Loyalty, Filial piety, Lee Soonshin, Imjin war(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Independence activists, Person of defending fatherland, Gwangju-Jeonnam Province, Jeonbuk Province

